

---

## 정길남

전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

다음 각 문제에 쓰인 낱말들은 각각 같은 대상을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이다. 그 대상은 누구일까?

- 문제 1. 너, 영감, 주(主)
- 문제 2. 사또, 총독

⇒ 답: 문제 1은 '예수', 문제 2는 '빌라도'.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을 가리킨다. 그런데 성경의 우리말 번역을 기독교 내부의 문제로만 여길 수는 없을 것이다. 19세기 말에 시작된 성경 번역 작업은 보통 조선인들의 말에 맞추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종의 말에 비탕을 둔 한글 전용의 길을 개척했다는 지적도 많다. 또 당시의 언어생활을 생생히 담고 있어서 우리말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기도 한다. 마침 올해는 1911년 대한성서공회에서 신약과 구약을 합한 완역본인 《성경전서》를 내놓은 지 꼭 백 년이 된다. 백 주년을 기리는 뜻에서 평생을 국어학자이자 한글 성경 감수자로 활동해 온 정길남 전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를 만나 보았다.

답변자: 정길남(전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질문자: 차익중(서울대학교 강사)

때: 2011년 5월 14일

곳: 서울교육대학교(서울 서초동) 퇴임 교수 연구실



**차의종:** 안녕하십니까. 제작년에 은퇴하셨다고 들었는데 최근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정길남:** 우선 한글 성경 번역 감수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초등 학생과 새내기 신도를 위한 《쉬운 성경》이 나왔는데 이 책의 우리말 감수 일도 맡았지요. 그리고 우리말 강의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직무 연수와 방과 후 교사 양성 과정에서 논술 글쓰기 강의를 하고 있고요, 학부생을 대상으로 초등 국어과 교육을 맡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서울교대에 위탁한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에서도 우리말 말소리를 강의하고 있지요.

그 밖에 제자들과 함께 수필 문학 모임을 꾸리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몇몇 문학잡지에서 수필 문학 작가 등단을 위한 심사와 추천 일도 맡고 있습니다.

**차익종:** 우리말 연구와 강의뿐 아니라 수필 문학까지, 퇴임 후에 더 바쁘게 지내시는군요.

**정길남:** 흔히 말하길 백수들이 더 바쁘다고……(웃음).

**차익종:** 오늘은 주로 한글 성경 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금년이 한글 성경 완역 100주년인데요, 사실 최초의 성경 번역은 19세기 말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정길남:** 맞습니다. 최초의 우리말 성경은 1882년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가 만주에서 조선인들과 함께 옮겨 발간한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와 《예수성교 요한니복음전서》를 꼽습니다. 그때부터 만주, 일본, 한국 등 세 방면에서 여러 분들이 성경 번역 작업에 힘을 기울였고, 이런 노력 끝에 1910년 《신약전서》가, 1911년에 《구약전서》가 발간되면서 비로소 성경 66권 전체를 완역한 《성경전서》가 나온 것입니다.

**차익종:** 그런데, 조금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부터 드려야겠는데요, “성경 발간 사업은 특정 종교 내부의 문제이지 우리말 연구나 우리말 생활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 번역이 우리말의 역사나 우리말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길남:** 아주 큰 의미가 있지요! 무엇보다 성경을 우리말로 옮기고 보급하는 과정이 곧 한글을 교육하고 한글 전용을 굳히는 일이었습니다. 15세기에 훈민정음이 창제되었지만 이 훈민정음만으로 글을 쓰고 기록하는 것, 즉 한글 전용은 구한말까지도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성경 보급이 주로 서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글의 보급에도 적지 않게 이바지한 셈이지요.

가령 이광수나 심훈의 소설을 보면 한여름 찌는 날씨에도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가득 채울 정도로 앉아서, 심지어 담벼락에 매달려 “가까거겨” 하며 한글을 익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보통 인종들이 글을 깨치고 익히는 데 한글 성경이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차익종:** 최현배 선생님도 한글이 한문과 달리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해 아주 적합한 문자였기 때문에 포교에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한글 성경과 한글 찬송가가 “한글을 민중 사이에 전파하는 데 ‘큰 공덕’을 세웠다.”고 하신 바 있지요.

**정길남:** 네, 1962년에 발표하신 <기독교와 한글>이라는 논문에서 그런 말 씀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종교들은 전도자가 먼저 들어온 후 현지 경전을 만들지만, 기독교는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번역 성경은 현지 문자로 된 것이니까,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문자를 저절로 깨우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 시대 우리말의 모습을 생생히 기록하는 귀중한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익종:**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정길남:** 가령 예수 그리스도를 2인칭으로 부르는 낱말이 조금씩 변합니다. 1882년 선교사 존 로스가 발간한 성경에서는 ‘영감’이라고 했고, 1884년 이수정 선생이 일본에서 발간한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너’라고 했지요. 예수가 베드로에게 ‘너’라 하고, 베드로도 예수에게 ‘너’라 부른 것이지요. 이게 아무래도 좀 이상하니까 1887년에 나온 로스 번역본에서는 ‘부자’가 됩니다. ‘부자’는 공자와 같은 스승을 부르는 한문식 용어였지요. 그 다음에는 ‘스승’으로 옮기기도 했고 2인칭을 생략하는 우리말 특장대

로 직접 부르지 않는 쪽으로 고쳤다가, 마지막으로 1900년 성경부터 ‘주’라는 낱말을 씁니다.

그 밖에 유월절은 ‘넘는 절’, 십자가는 ‘십자틀, 나무틀’, 광야는 ‘빈들’이라 하였지요. 또 빌라도의 관직명을 오늘날 성경에서는 ‘총독’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일제 강점기 때 비롯된 것이고 그 전에는 ‘사또’라고 하였지요. 글썄, 우리가 독립을 계속 유지했었다라면 지금까지도 ‘빌라도 사또’라고 불렀을지 모르겠네요(웃음).

**차익종:** ‘하나님’을 ‘상제’라 옮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정길남:** 이수정 선생이 일본에서 발간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선생이 본래 한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그분이 옮긴 성경에는 한문 투가 많습니다.

**차익종:** 혹시 방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지요?

**정길남:** 그게 또 재미있습니다. 가령 로스 번역본에는 평안북도 방언, 특히 의주 방언이 많이 보입니다. 부모를 ‘아밤’, ‘어멈’으로 옮겼고 말 못하는 이를 ‘버버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로스 목사가 만주에서 평안도 출신 사람들에게서 우리말을 배웠고 또 초기 기독교 전파가 평안도를 중심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익종:** 방언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라는 말씀이군요. 그만큼 성경 번역이 우리말 생활이나 우리말 연구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크다는 것인데, 그러고 보면 15~16세기 우리말 연구의 주된 자료도 종교 경전 번역문들이지요.

**정길남:** 불경 언해문들이 바로 그것이지요. 불경 언해를 빼놓고 15세기

국어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연산군 때 소위 언문을 쓰지 말라면서 책들을 불태웠었던 사건이 있었지요? 그때 불교 신도들이 목숨을 걸고 책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이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아무도 이 연구를 불교와 결부 짓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글 성경도 우리말 연구 자료로 손색이 없습니다.

**차익중:** 한글 성경이 발간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일화가 있었겠습니다.

**정길남:** 존 로스라는 분은 스코틀랜드 출신 선교사인데 매제인 매킨타이어와 함께 포교를 위해 중국에 왔거든요. 그러다가 동쪽 끝인 압록강 의주 건너편, 소위 ‘고려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고려문이란 오늘날 홍콩과 같이 교역을 하는 구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복장을 한 사람들이 압록강 건너 의주 쪽에서 와요. 보부상들이었지요. 자세히 보니 갓 쓰고 옷 입은 품새가 중국인과 다르단 말입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요.” 하니 까, 물 건너 조선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스가 “내가 비용을 낼 테니까 조선어를 가르쳐 달라.” 하며 우리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로스는 이때 배운 말로 《한국어 기초(Korean Primer)》라는 회화 책을 만들지요. 그 내용이 또 재미있습니다.

물 건너 사람 어딴습마?

대마당에 이서 일함메.

물주 어딴습마?

대처발에 있음마, 이제 나갑데.

전형적인 의주 방언이지요. 이렇게 조선어를 배운 로스 목사가 이응찬, 서상륜, 백홍준 같은 분들과 함께 성경 번역을 시작했고, 제일 먼저 내놓은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조선 신도들이 이것을 봇짐 안에 감추고 목숨을

걸고 들여올 때 물난리까지 겪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후 기독교 전파가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면서 대한성서 공회가 서울말을 중심으로 성경을 옮겨야겠다는 생각으로 1911년에 《성경전서》를 발간한 것이지요.

**차익종:** 1911년 《성경전서》가 곧 오늘날 기독교에서 쓰는 성경은 아니겠지요?

**정길남:** 물론 그 후로도 고치기를 거듭했지요. 말이라는 것이 계속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초기 성경이 나올 때에도 여전히 우리 말과 글이 한문 투에서 벗어나는 중이었기 때문에 번역이 계속되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한글 성경의 모태는 1938년에 나온 《성경개역》인데 여기에도 한문 투가 많아서 《성경전서개역한글판》을 1961년에 선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개역 한글판은 새로운 번역이라기보다는 기존 성경을 1933년 조선어학회의 한글맞춤법통일안에 따라 고치고 ‘ㅅ’를 ‘ㅆ’로 바꾸는 정도였기 때문에 여전히 한문 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고쳐서 내놓은 것이 1993년에 내놓은 《성경전서 표준새번역》입니다. 간단히 《표준새번역》이라 부릅니다. 이전 성경을 보면 “개동 시에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라고 했는데 무슨 소린지 아시겠어요? 이걸 “아침이 밝을 때에”라는 뜻이고, 또 그렇게 고쳤습니다. 또 “반구의 소리가 울렸다.”를 “비둘기 소리가 들렸다.”로,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를 “남쪽에서 출발했다.”로 고쳤지요. 이런 식으로 한글 세대를 위해 우리말 어법에 맞는 성경을 내놓은 것이지요.

**차익종:** 《표준새번역》이 나오면서 번역자들께서 한숨 돌리신 건가요?

**정길남:** 그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막상 《표준새번역》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전 성경을 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심하게 말

하면 《표준새번역》은 대한성서공회에 가야 구입할 수 있다고 할까…….

**차익종:** 무슨 까닭이 있습니까?

**정길남:** 쉬운 우리말로 성경을 읽고 암송하기를 꺼리는 태도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감수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적지 않았습니다. 가령 창세기 첫 구절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해 놓았는데, “성경은 본래 암송이니까 옛날 경전 암송하듯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해야지, 이게 뭐냐.” 하는 반론이 주로 나이 많은 교인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또 “창조하시었습니다.”로 해야만 동의하겠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하도 반대가 심해서 결국 공들여 내놓았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차익종:** 그 이후에 개역판이 계속 나온 까닭도 그래서군요.

**정길남:** 그렇습니다. 《표준새번역》의 보급이 어려워지자 새로운 개역본을 시도했습니다. 1998년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이 그래서 나온 것이죠. 《개역개정판》은 아주 공을 들여 내놓은 것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는 물론 구세군, 루터교회, 나사렛교단까지 거의 모든 개신교단이 전부 참여해서 이루어냈습니다. 현재는 이 《개역개정판》이 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차익종:** 그렇게 계속 우리말로 옮기고 감수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겠습니다.

**정길남:** 아,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하는 일은 성경의 번역이 아니라 ‘우리말 감수’입니다. 번역은 성경으로 학위를 받은 전공 교수들이 히브리어 원전에서 직접 옮기는 일이고, 저는 이 분들이 내놓은 번역문을 우리말답게 다듬고 고치는 일을 맡은 것이지요.



**차익종:** 물론이겠지요. 번역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원전의 내용을 정확히 옮기는 데에 주력을 하실 테고…….

**정길남:** 저는 국어학자로서, 우리말답게 옮기도록 감수하는 것이지요. 제가 교정지에 연필로 수정을 한 후에 원래의 번역자에게 보내고, 또 제가 연필로 수정해서 보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작업을 계속합니다. 특히 《개역개정판》을 감수할 때는 독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차익종:** 독회를 몇 번 정도 하셨나요?

**정길남:** 한 스무 번 정도 했지요.

**차익종:** 한 단위, 한 대목을 놓고요?

**정길남:** 네, 한 번 읽고 나서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차익종:** 한 번 독회 때 몇 분이 모이나요?

**정길남:** 한 서른 명 정도였어요.

**차익종:** 대단한 풍경이었겠군요.

**정길남:** 성경 번역할 때마다 다 그런 풍경이지요.

**차익종:** 한 번 모이면 몇 시간 정도 하십니까?

**정길남:** 날을 새워서 1박 2일씩 하지요. 한번 토의가 붙으면 몇 시간 동안 한 페이지도 못 나갑니다.

**차익종:** 보통 정성이 아니었겠습니까.

**정길남:** 성경 감수 중에는 이런 장면이 벌어집니다. 번역자들은 주로 신학대학의 교수님들로, 66권별로 가장 권위 있는 분들이 참여하여 원탁회의로 축조심을 하는데, 서로 견해가 다를 때에는 어떤 어휘나 표현을 쓸 것인지 정말 목숨을 내건다 할 만큼 양보를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도 결국은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의견은 국어학자에게 묻게 되죠. 여기서 의견을 한마디 내놓으면 바로 매듭이 지어질 수 밖에 없지요.

**차익종:** 그렇게 공을 들인 만큼 새로운 번역이 좋은 반응을 얻어야 할 텐데요.

**정길남:** 그렇습니다. 반가운 사실은 최근에 나온 《쉬운 성경》과 《100분 성경》이 아주 환영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은 본래 초등학생들을 생각해서 만든 것인데 일반 교인들, 특히 초신자들이 좋다고 하고, 또 목사님들도 설교 때 직접 낭송하기도 한다니 아주 기쁜 일입니다.

**차익종:** 감수 과정에서 특별히 역점을 두시는 점이 있습니까?

**정길남:** 정확하고 쉬운 우리말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글 성경이 한글 전용의 선도 역할을 해 온 만큼 잘못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니다. 따라서 우선 쉬운 말로 정확하게 옮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개동 시에’와 같은 표현은 곤란합니다.

**차익종:** 쉬운 말이란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표준어 규정에 ‘교양 있는’이라는 구절이 있지만 단순히 학교를 많이 다녔다기보다는 품위가 있으면서도 보통 한국 사람이 쓰는 한국어다운 표현, 가장 많은 사

람이 쓰는 전형적 문장이나 어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길남:** 교양 있으면서도 쉬운 말, 너무 현학적이지 않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딱딱한 말, 지나치게 전문적인 말, 토박이말이라 해도 현재 안 쓰이는 말 같은 것은 되도록 피하려 합니다.

**차익종:** ‘쉬운 우리말’에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길남:** 저는 본래 초등학교 교과서를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 교과서를 전범으로 삼습니다. 교과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노력의 결과입니다. 교과서는 확정안이 나오더라도 그대로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실험본을 만들어 도별로 두 학교씩 지정해서 1년 동안 강의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교사들이 강의를 하면서 본인들이 직접 살피고, 또 가족들에게도 묻고 해서 고칠 점을 알려 오면 이를 반영해서 또 고칩니다.

**차익종:**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니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문장과 어휘를 고치는 것은 아니었군요.

**정길남:** 그렇죠. 초등학생들을 언중으로 해서 이들이 가장 쉽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표현으로 다듬는 연습을 저 스스로 해 온 것이지요. 성경 번역의 한글 감수라는 일도 이 덕택이라 할 수 있겠죠.

**차익종:** 그러고 보니 개화기 교과서를 주제로 삼아 쓰신 논문이 많더군요. 한글 성경 연구 역시 개화기 시기 것이 많았는데, 이렇게 개화기에 주목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길남:** 본래 석사 학위는 음운론, 그러니까 현대 우리말 말소리를 주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주대학교 교수로 부임해서 우연히 도서관에서

1900년 《신약전서》 원본을 발견한 것입니다! 마침 제가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던 참이라, “바로 이거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개화기 국어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많지 않았던 데다 개화기 문헌에서는 번역 성경이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차익종:** 그런데 바로 《신약전서》 원본을 발견하셨으니…….

**정길남:**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후로 개화기 한글 성경, 개화기 국어 교과서, 독립신문에 나온 한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지요. 그러다 보니 1980년대부터 한글 성경 감수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차익종:** 그런 인연으로 한글 성경 발간에 30년 동안 관여를 하신 것이군요. 퇴임하시면서 인생의 새로운 막을 열어 가시는 셈인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길남:** 여생이 주어지는 한 제자를 양성하는 데 힘을 쏟으려 합니다. 사업가는 자산을 남기고 교육자는 제자를 남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교수가 되기 전에 교사 생활을 오래 했었는데 그때 교사 연수를 무에 양주동 선생님에게서 받았었습니다. 그때 연세 많으신 무에 선생님이 아침 아홉시부터 오후 한 시까지 정말 한숨도 쉬지 않고, 스스로 “신들려 강의한다.”라며 열변을 토하시던 모습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분을 제 본보기로 삼아 제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유익하고 흥미로운 강의를 정성을 다해 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차익종:** 국어 교사인 제자들에게 평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정길남:** 우리 말소리에 대한 관심을 잃지 말아 달라는 것이지요. 가령 이중 모음 ‘왜’와 단모음 ‘외’는 발음법이 다른데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간

혹 있습니다. 또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인터넷 용어를 많이 쓰는 모습에 대해 저는 그래도 이해해 주는 편입니다. 다만 선생님들이 우선 스스로 연구하고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차익종:** 건강 관리도 하셔야 할 텐데요.

**정길남:** 시골에 텃밭을 얻어서 일주일에 사흘 농사지으며 살고 있지요. 수필 모임 때 제자들에게 무농약 채소를 듬뿍 싸 주는 것이 낙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자리도 농사짓다 막 뛰어온 것이어서 두서가 없었어요(웃음). 그렇지만 좋은 강의를 했을 때 제자들 얼굴에 떠오르는 환한 웃음이 저에게는 최대의 보약입니다.

**차익종:** 귀중한 시간 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하시고 싶은 일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정길남:** 저도 고맙습니다. 우리말을 가꾸고 사랑하는 분들께 모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립국어원에도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